

보도자료



K I H A S 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https://kihasa.re.kr>

배포일시 2023년 7월 26일(수)

보도일시 **즉시**

매 수 총 5매

『보건복지포럼』 7월호 발간

- 이달의 초점 -

한국 여성의 건강 관리 현황과 과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이태수·이하 보사연)은 보건복지포럼 7월호(통권 제 321호)를 다음과 같이 발간했다.

■ 권두언: 여성건강관리의 필요성과 고려사항 /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 미래의료 연구부장

- 주요 내용 -

여성 건강관리와 이를 위한 정책 개발을 위해 어떠한 것들이 고려되어야 하는지 살펴보자. 첫째, 여성 건강 수준에 대한 현황 분석이 우선되어야 한다. 건강 상태나 질병 현황에 대한 단순한 성별 차이를 넘어 원인에 대한 분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건강이나 질병 관련 분석에서 성별뿐 아니라 젠더 관점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 건강 결정에는 나이와 성별 차 이외에 사회적, 물리적 요인들이 크게 관여한다. 보건의료 영역에서 젠더 관점의 분석과 관리 정책이 필요한 이유이다. 셋째, 여성 특이적 건강 상태에 대한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 2022년 한국 여성의 생애주기별 성·생식 건강 조사에 따르면 여자 청소년의 40% 이상이 심한 월경통을 겪고 있다. 성인 여성에서도

45% 이상이 심한 월경전증후군이 있음에도 일부만이 병의원 진료를 받는다고 한다. 그 간 여성 건강에 대해서는 출산과 난임에 집중되었으나 이제는 생리와 폐경을 아우르는 연구와 관리 정책 확산이 필요해 보인다. 넷째, 질병을 넘어 여성 건강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에 대한 접근이 확대되어야 한다. 외모에 대한 인식, 여성의 노동 형태, 가정에서의 돌봄노동 등에 대한 고려 없이는 여성 건강 수준의 개선은 어렵다. 앞서 언급한 젠더 분석을 넘어 사회문화적 환경의 중재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다섯째, 소수 집단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출산율을 고려한다면 향후 우리 사회에서 이들의 비중은 계속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가 이주 여성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이다.

여성 경제활동인구의 증가, 고령화 등과 함께 여성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보건복지포럼 7월호는 한국 여성의 건강 수준뿐 아니라 그동안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던 부인과 의료 이용, 피임, 그리고 여성에서의 헬스 리터러시에 대해 분석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연구자들뿐 아니라 현장의 전문가들이 함께 여성 건강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개선 방안을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이달의 초점 / 한국 여성의 건강 관리 현황과 과제

-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 현황 및 시사점 / 박은자(보사연 연구위원)
- 여성의 부인과 의료 이용 현황과 과제 / 최승아(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부교수)
- 여성의 피임 실천 현황과 시사점 / 전진아(보사연 연구위원)
- 여성의 건강리터러시와 건강행동 / 천희란(증원대학교 보건행정학과 부교수) · 박은자(보사연 연구위원)

■ 정책분석과 동향

- 일-생활 균형과 삶의 만족: 결혼·가족 특성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변수정 보사연 연구위원)

■ 보건복지 소식 광장

[붙임] 이달의 초점 각 주제별 요약

○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 현황 및 시사점 / 박은자

여성은 유방암, 난소암 등 여성 고유의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다. 생애주기별로 신체·생리적 변화와 사회경제적 환경이 여성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기부터 노년기까지 5567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2년 한국 여성의 성·생식 건강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령이 증가할수록 양호한 주관적 건강 수준은 낮아지고 만성질환이 증가했다. 청소년과 19~39세 초기 성인에서 우울감이 높았다. 청소년과 초기 성인에서 빈혈증과 저체중의 건강 문제가 있었는데, 중장년과 노인에서는 비만과 생식기계 질환을 포함한 주요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았다. 저체중과 비만은 노인을 제외한 모든 생애주기에서 주관적 건강 수준과 관련이 있었다. 여성은 생애주기별로 위험 요인과 건강 문제가 달라지므로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건강 증진 전략을 마련하고 만성질환 관리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 여성의 부인과 의료 이용 현황과 과제 / 최승아

한국 여성들이 적시에 필요한 부인과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 여성들이 갖고 있는 부인과 건강 문제를 확인하고 부인과 의료 이용 현황과 함께 여성들이 부인과 진료에 어려움을 겪는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2022년 수행된 ‘한국 여성의 생애주기별 성·생식 건강조사’의 의료 이용 설문 결과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라 주요 부인과 건강 문제와 미충족 의료 경험률에 차이가 있었다. 초기 성인과 청소년에서 노인보다 대체로 부인과 건강 문제가 흔했다. 중장년층에서는 10명 중 1명꼴로 자궁근종 제거 수술을 받았다. 부인과 진료가 필요한데도 받지 못한 주된 이유는 시간이 없는 것과 산부인과 검진이 불편한 것이었다. 한국 여성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대수명 대비 건강수명의 분율을 높이려면 부인과 진료의 장애물을 줄일 수 있는 정책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여성의 피임 실천 현황과 시사점 / 전진아

이 글에서는 2022년에 수행된 ‘한국 여성의 생애주기별 성·생식 건강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여성의 피임 실천 현황을 생애주기별 항상 피임 실천율과 피임 방법, 현대적 피임 실천율, 피임 주체와 피임 결정 주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글에서 살펴본 한국 여성의 피임 실천 현황을 종합해 보면 청소년 및 초기 성인의 절반 정도가 성관계 시 항상 피임을 실천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한국 여성이 월경 주기나 질외 사정, 다른 피임 방법을 함께 사용하고 있었다. 의도하지 않은 임신과 성매개 질환으로부터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피임 방법을 실천하는 것이 여성 건강 및 성·생식 건강의 중요한 영역이므로 피임을 임신, 출산과 관련한 재생산 건강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에서 벗어나 청소년기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성 건강 및 피임에서의 자기결정권, 여성 건강의 논의 주제로 보다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 여성의 건강리터러시와 건강행동 / 천희란·박은자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부터 노년기 여성 인구를 대상으로 생애주기와 특성에 따른 건강리터러시 수준을 알아보고, 건강리터러시와 8가지 건강행동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단일문항 건강리터러시를 사용한 분석 결과 한국 여성의 24.6%가 건강리터러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연령별로 큰 차이가 나타났다. 우리나라 여성의 건강리터러시 위험은 16~64세에 비해 65세 이후 현저하게 높아진다.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의 경우 약 60%에서 건강리터러시 문제가 있다. 건강리터러시가 낮은 그룹은 모든 연령대에서 주관적 건강수준이 낮고, 건강행태가 나쁜 경향을 보인다. 건강리터러시는 건강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현재 및 과거 흡연, 고위험 음주, 신체활동, HPV 예방접종, 자궁경부암 검진, 유방암 검진’ 지표에서 생애주기별 차이가 있다. 건강리터러시의 영향을 고려하여 건강행태와 건강수준을 개선하는 정책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건강형평성과 여성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 건강리터러시 근거가 있어야 한다.

※ 포럼 내용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https://www.kihasa.re.kr>) 발간자료
→ 정기간행물 → 보건복지포럼에서 원문 파일을 바로 보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